

갑신년 동안거 해제 현장 -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길 없는 길 ... 무엇을 얻었는가

길을 떠난다. 길 없는 길. 바람 하나 등에 짊어지고 산문(山門)을 나선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자 지난 한철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기 위해 뜨겁게 궁구(窮究)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얻었는가. 언제까지 빈손으로 산문을 드나들어야 하는가. 발걸음이 무겁다. 갑신년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3일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의 수좌들은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만행을 떠났다.

동방장에서 6명, 서방장에서 10명 등 모두 16명의 수좌들이 정진한 쌍계사 금당선원은 육조 스님의 정상(頂相:머리)을 모신 터전에 창건된 절이다. 그만큼 쌍계사에서 발원하는 선의 역사는 깊고도 그윽하다.



갑신년 동안거를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에서 보낸 수좌들이 해제일인 2월 23일 산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재관 기자

석달 안거 마치고 만행길로

신라의 대비·삼법 스님은 육조 스님에게 법을 깨우쳐줬다는 구법의 일념으로 당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육조 스님이 입적하고 난 뒤였다. 두 스님은 대신 육조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고국에 돌아오자 간절히 기도 정진하던 중, 꿈에 “육조 스님의 정상을 삼신산(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을 뿔인 계곡 위 절벽이 피는 곳을 찾아 모신법 불발이 흥왕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에 현재 쌍계사 자리에서 절을 세우게 됐는데, 그 자리가 오늘날 금당선원이다. 그 뒤 진감 선사는 당나라에서 육조의 남종선을 있고 지관법(止觀法)을 닦은 뒤 귀국했다. 838년을 전후해 쌍계사를 본격적

인 선도장으로 다져나갔다. 육조영당(六祖影堂)을 현재 금당이 서 있는 자리에 세워, 그곳이 육조혜능 정상이 해동(海東)에 전래했다는 ‘육조정상 봉안설’의 근원지가 됐다. 이를 근거로 1864년 쌍계사 스님들이 육조정상탑을 세웠으며, 그것을 봉안한 전각이 현재의 금당인 탑전이다.

금당선원은 육조정상탑을 모신 탑전인 금당이 정중앙에, 좌우로 동방장과 서방장이 상선원을, 대종방인 영주각(선당이) 하선원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청화루·팔상전·영모전·주지실이 선원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갑신년 동안거를 쌍계사 금당선원에서 보낸 능원 스님은 “금당선원에서 정진을 하면 편안하면서도 힘이 생긴다. 특히 서방장의 경우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용맹정

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금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각지붕 건물로 내부에 육조정상탑이 모셔져 있는데, 정면 좌우에 육조정상탑과 ‘세계일화 조종육업(世界一華 祖宗六業)’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이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만허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쓴 것이다.

“물 가운데 불, 불 가운데 물이”

“선원이 동방장과 서방장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정진 중 공식적인 포행을 하지 않는다”는 능원 스님은, 조실 고산 스님이 음력 보름마다 선원 수좌들에게 법문을 했다고 전했다. 고산 스님은 대웅전에서 열린 동안거 해



쌍계사 금당에는 육조 스님의 머리가 모셔져 있는 육조정상탑이 있다.

제법회에서 “한 바퀴의 밝은 달이 항상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한되/대지의 준동함령(蠢動含靈)이 본래스스로 여여하도다/물 가운데 불이 있고 불 가운데 물이 있다/진(眞) 가운데 망(妄)이 있고 망 가운데 진이 있다”고 법문했다.

고산 스님은 또 “시방 중생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전체가 움직이되 오직 움직이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 금일 대중은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가? 만약 알았다면 응당할 갈 곳을 알 것이며,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어느 곳을 향해 갈 것인가? 만약 갈 곳을 알진데 곧 안심명처(安心命處)를 알리니 어느 곳이 안심명처인가? 속히 한 마디 일러라”며 할로 마무리했다.

쌍계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각 총림 갑신년 동안거 해제 법어(요약)

구하지 않고 이미 얻음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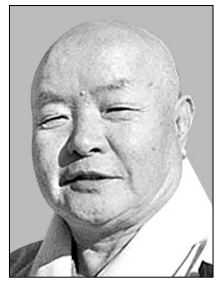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맺으려야 맺을 것이 없고 풀려야 풀 것이 없노라. 없고 없는 것을 모두 버리니 구를 열리고 안개 개인 곳에 달빛이 새롭다.

이도전각 무근수(利刀剪却 無根樹) 날썬 칼로 뿌리 없는 나무를 베니 만찰빙설 백잡쇄(萬疊氷雪 百雜碎) 만겹의 빙설이 산산이 부서지네 교목한연 야장정(喬木寒煙 夜澄澄) 찬 연기 양상한 가지에 밝기는 냉냉한데 설립매화 신축비(雪立梅花 新鶻鼻) 눈 가운데 매화향기 코에 새롭네

모든 대지인(大地人)이 구하지 않고 이미 스스로 얻음이라도. 가히 한 물건도 지을 수가 없되 가히 또한 다른 물건도 지을 수가 없다. 나 또한 이와 같고 저 또한 이와 같



다. 소리를 들어 도를 깨닫고 성품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일이 다른 집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부처도 다만 이 마음을 밝힌 이이며 현재의 성현들도 이 마음을 밝힌 이이며 미래의 확인들도 반드시 이 법에 의지해야 한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하여 몸을 뒤집 곳이 있는가? 뒤칠 수만 있다면 눈앞에 불(佛)과 조사(祖師)도 없겠지만 만일 몸을 뒤치지 못한다면 부질없는 학식 따위를 가지고 조사의 마음에 묻히게 하지 말라.(후략)

해제 잇고 정진 또 정진하길 ...

보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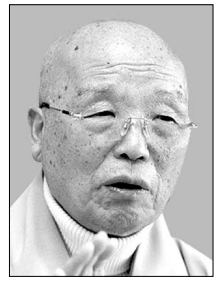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가 누구냐? 불어만법위요자수(不與萬法團緣者誰)

방거사는 두세번 자기의 전 재산을 남들에게 모두 나누어주는 보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보시 때는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재산을 동정호 물 속에 처넣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보시행이 탐욕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업을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삼월에 훌륭하게 정진하신 스님네들은 방거사 못지않은 기쁨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해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진을 계속하면 생사를 요달하는 경계에 이를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가야총림을 이끄실 때 해제절을 알뜰히 챙기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든 선지식을 만나면 법문을 청하고 회상을 열었습니다. 활없이 정진 또 정진하다가 일대사 마치는 그 순간이 바로 해제라고 늘 말씀했습



니다. 만공 스님은 집을 많이 지으셨는데 절제 중 스님들이 윤력을 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정자 집이 완성되어 정진하기 좋게 되자 스님들이 계음을 피우더랍니다. 윤력 중에는 정진을 들먹이고 정진 때가 되자 졸고 앉아있는 대중을 보고 만공 스님이 손해 많이 봤다. 집이나 더 짓자 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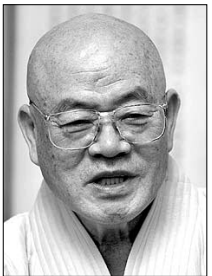
환경이 좋아지면 공부 더 게을러지기 쉬운 게 사람 일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시고 다시 열려 들어와서 우리 즐겁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만법으로 예우지 않는 자 누구리오? 불어만법위요자수(不與萬法團緣者誰)

만법으로 예우지 않는 자 누구리오? 불어만법위요자수(不與萬法團緣者誰)

● '해제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잡자는 병통, 망상을 일으키는 병통을 없애려면 우선 참선에 들 때 ‘빨리 견성해야겠다’는 탐(貪)심을 버리고,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진(眞)심을 버리며, ‘나는 이정도면 잘한다’는 치(痴)심, 즉 탐진치 삼독(三毒)을 버리고 화두를 들어 정진해야 합니다.”



“탐진치 버리고 화두 정진해야”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화두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참선 아닌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당시부터 관법(觀法)이 있었습니다. 옛날 쌍계사 노스님이 화관(火觀)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계사 아래 마을에서 불이 났다며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서방장에서 참선에 든

후 스님 주위로 불꽃이 올라온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수관(水觀)도 했습니다. 한 스님이 참선을 하니 방 전체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를 본 제자가 기왓장을 던지자 그 스님이 ‘배에 물이 들어와 아프다’며 빼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어요.”

남동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공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에서는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이끌어 갈 학인 스님을 배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방부바랍니다. 모집학과: 치문과 00명, 사집과 0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 추천서(각 2부), 6. 사진4매(사미의제, 대가사 복장), 7. 입학금: 20만원. 문의처: 055)384-2035(지객스님, 원통방) · 055)383-2363(강원, 감로당) 055)382-7182(종무소 교무국) 불기 2549년 3월 일 영축총림 통도사 住持 怡山 玄門 · 講主 慧嚴 友眞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불교교양대학 제4기 신입생 모집. 천년고찰 약사도량 흥국사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근본교리, 불자예절, 기도, 참선에 이르기까지 불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 내용을 4개월간 배우는 불교대학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불자님이나 오랫동안 절에 다녔더라도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 된 불교대학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 개강일시: 2005년 3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교육기간: 2005년 3월 8일(화) ~ 6월 28일(화) 4개월 과정.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 오후 1시. 강사: 흥국사 주지(대오). 교재: 불교입문. 특강: 매월 1회 - 여연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치문화연구원 이사장), 한산스님(흥국사 상임대법사), 박원일 법사, 차차석 교수. 수강료: 4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02-381-7970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흥국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http://www.heungguksa.or.kr. 주말 템플스테이 안내: 흥국사에서는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4시부터 주말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가족단위 동참 가능함). 일시: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전 10시(1박2일). 약도: 일산·문산 방향, 임영방향, 천년고찰 흥국사, 구파발삼거리, 구파발역(지하철3호선), 삼천리교, 북한산성, 송추방향, 불광동 방향,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북한산 방향) 1번 출구에서 매일 10시 신도단체 차량 출발